성장 과정

IT 개발자인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때 컴퓨터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인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보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고,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게임을 하면서 웹 사이트나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 결과물을 보며 '나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개발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때, 개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부산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들어간 군 생활에서는 정보작전병으로 보직 생활을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대 일과를 데이터화해서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을 통해 SQL공부를 틈틈히 했습니다.

전역 후 복학을 하면서 SQL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학원에서 Oracle을 배우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익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서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출력되는 데이터가 변화되는 모습에서 재미를 느꼈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백엔드 개발자로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2021년 졸업 후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풀스택 개발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백엔드 개발을 진행하면서,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ariaDB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간 개발 환경과 사용 방법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Spring Boot를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확장이 편리한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고, RESTful API를 개발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을 구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개발을 배우면서 HTML과 CSS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Node.js를 사용하여 JavaScript로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배워 더 나은 개발자로서 성장하겠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Java 기반 백엔드 개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면서 개발을 어려워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었고, 수업 후 자습실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하고 GitHub를 통해 사용한 코드를 저장하며 복습했습니다. 과정이 끝났을 때 출석률 100%와 전체 성적 2등으로 수료했고, 도움을 받은 팀원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코드를 입력하면서 실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적습니다. 처음 개발을 배울 당시, 변수에 데이터를 안 넣거나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넣는 등 사소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실수를 해결했지만, 스스로 해결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과정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변수를 선언할 때 주석으로 표시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표시합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선언할 때 용도에 맞는 이름을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여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바로 해결하고, 이유 모를 문제라면 첫 번째 줄을 복사한 뒤 인터넷에 검색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클린 코드 작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중복된 코드를 줄이는 방법과 불필요한 주석 제거 등 코드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님들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소통을 많이 하고, 여러 무료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 최근 작성에 대한 동향을 알아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준 프로그래밍을 통해 알고리즘을 공부하며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용추가 - 희망사항]

성격의 장단점

저는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6번의 필기 시험을 불합격을 했고, 7번째로 도전한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후 실기시험이 치뤄질 때 마다 도전했고 불합격을 3번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도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마스터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전 했었습니다. 1차 시험은 쉽게 통과 했지만, 2차 시험을 치룰 수 있는 6번의 기회를 전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후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휴식하고 있지만, 차후 시간이 된다면 다시 도전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여 상호 간 의견을 잘 맞춰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동료들로부터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스토리2] – 팀프로젝트 내가 만들었던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스토리 풀기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전역 후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클라이언트에서 출력되는 데이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서버에서 일어나는 동작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풀 스택 개발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그중 백엔드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보이는 데이터나 요청한 데이터가 서버를 통해 처리되는 방법을 배웠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에 재미를 느껴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엔드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를 연결하는 방법과 가공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과정에서 웹 개발에 대한 기본지식과 Axios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 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의 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적응하여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